

충남도 재정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지역 관광통계 구축방안

임재영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 chyim@cni.re.kr

이종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space@cni.re.kr

이 연구는 충청남도 재정투자사업 중 시군 이하 소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의 수요전망에 필요한 기초통계 현황을 분석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채택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CONTENTS

1. 충남의 재정투자사업 추진현황
2. 재정투자사업 추진과 수요전망
3. 기초통계의 필요성과 현황
4. 타 지역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
5. 충남지역 관광통계 개선 방안

요약

- ◀ 이용가능한 재원의 부족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나 개발사업을 상위 위계 지역이나 중앙정부의 심사 및 관리를 전제로 하는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음
- ◀ 2016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심사의 통과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 투자심사의 핵심내용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연관되며, 수요전망과 계획내용의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은 제고됨
- ◀ 이러한 수요전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군 이하 소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의 수요전망에 필요한 기초통계가 부족한 상황임
- ◀ 국내 여러 지역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중앙정부 공표자료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충남 내 소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작업이 필요함
- ◀ 이에 따라 향후 충남 지역에서 필요한 관광통계 정비 및 조사방안이 마련되어야 충남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채택가능성과 정책실효성 등은 제고될 수 있음

01

충남의 재정투자사업 추진현황

- 자체 재원만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정책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상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심사와 관리를 전제로 하는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로 <표 1>은 재정투자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민간투자사업¹⁾이나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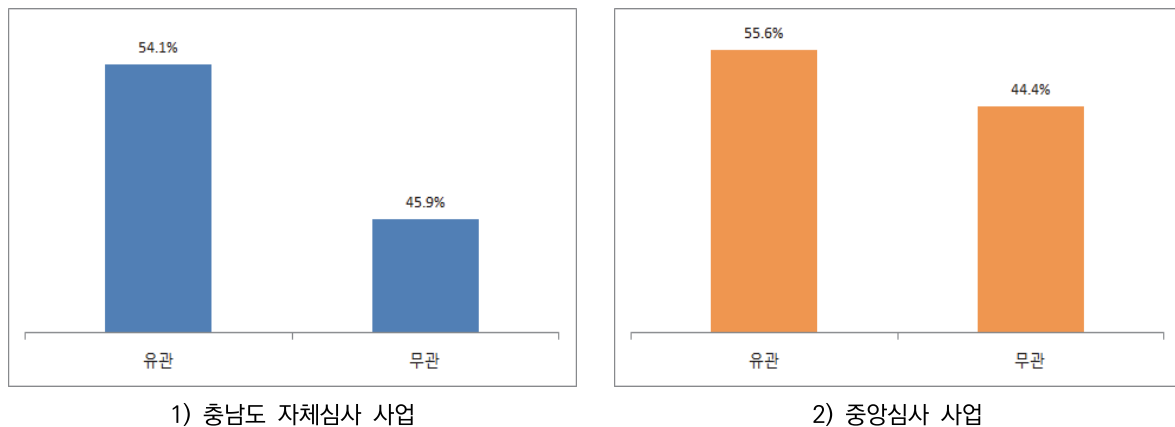
〈표 1〉 재정투자사업 구분

구분			사업비 기준	비고(관련법)	평가관리(지원) 주체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PIMAC 및 지정 센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비 R&D사업: PIMAC) (R&D사업: KISTEP)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중앙 심사*	시군 의뢰	200억원 이상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LIMAC)
		시도 의뢰	300억원 이상		
	도자체 심사	시군 의뢰	6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충청남도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자체	4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시군 자체 심사		2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 500억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수행

1) 이용가능한 재원의 부족문제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경우,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하려는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에서도 활발하게 재정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소된 2017년 이래, 충남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한 재정사업은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사업 33건과 지방재정투자(충남도 심사)사업 51건 등 총 84건으로서 매 투자심사 횟수별로 20개 이상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대상 및 민간투자 사업은 개별 시군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규모가 대형인 경우가 일반적임
- 충남도와 15개 시군에서 추진한 재정투자사업 중 지역의 관광개발사업 비중은 (그림 1)과 같음
 - 관광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사업수요의 파악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역 관광통계가 요구되며, 관광개발의 영역 외에도 문화 체육 시설의 조성 등에서도 관광통계가 요구됨
 - 이 외 지역 관광통계와 무관한 재정투자사업들로는 환경, 복지, 청사건축 등의 영역에 포함된 사업들로 이들은 주로 지역의 인구규모 변화 및 사업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됨
- 그림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된 일부 시군들을 제외하고, 충남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에서 관광개발 성격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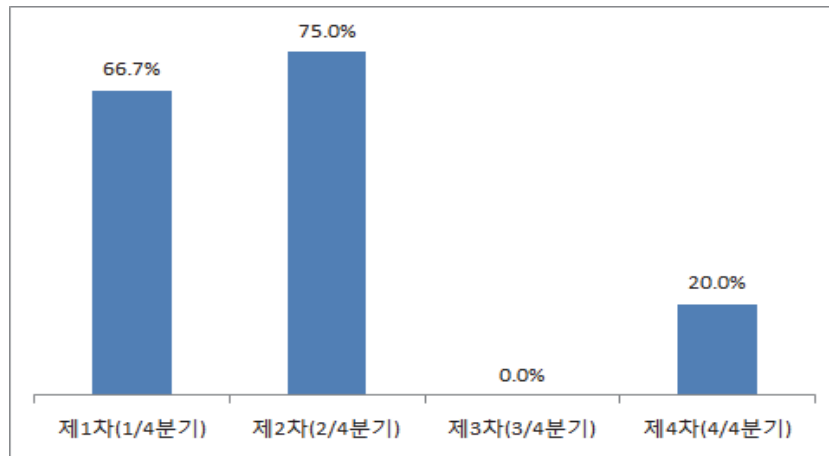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2017) 내부자료

〈그림 1〉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과 지역관광통계의 연관성

-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및 시군 제안 관광개발 재정투

자사업의 채택률은 (그림 2)와 같이 높지 않음

- 특히 2017년 제3차(3/4분기)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사업에 제출된 충남 사업 전체가 탈락한 바 있음



자료 : 충청남도(2017) 내부자료

〈그림 2〉 충남 관광개발 관련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사업 통과율(2017년 기준)

- 이는 주로 2016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이후 “투자심사 강화”라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심사 강화 기조는 2017년부터 중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음
-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 평가 및 관리 강화”라는 정책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지방분권 강화’ 기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 추세임
 -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광역시도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 투자심사 강화만이 아닌, 중앙투자심사를 포함한 대형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평가와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한 재정투자사업의 준비 및 추진 과정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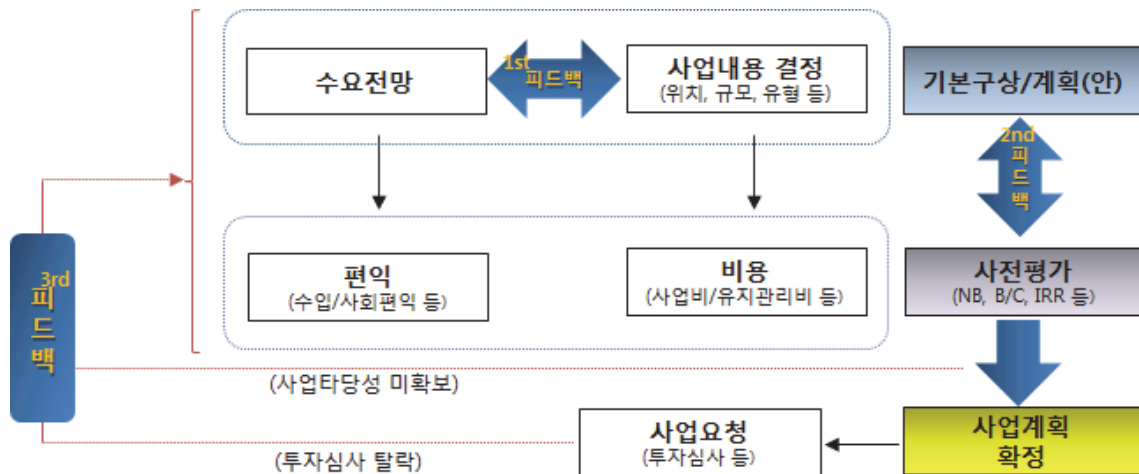
재정투자사업 추진과 수요전망

- 앞에서 언급된 2017년 정기 제3차(3/4분기)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사업들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충남도 및 시군 제안 사업들의 공통적인 재검토 사유는 다음과 같음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재검토 사유 공통 내용〉

- ①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토대로 사업규모 변경
- ② 객관적인 관광수요 토대로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수지분석 필요
- ③ 자체 타당성 조사관련 비용, 수요 및 편익추정은 LIMAC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적용 보완 필요 등

-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업수요 검토가 미비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의 재검토를 요구함”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수요전망을 통한 사업내용(규모, 유형, 위치, 시점 등) 사이의 검토 및 피드백 과정이 부족함이 언급됨
 - 일단 사업수요에 대한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내용이 나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는 편익과 비용 등의 구체적 추계가 가능함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함이 언급됨
- 결국 상기의 두 가지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등에서 밝히고 있는 제반 과정의 준수 및 이행 정도가 부족함을 가리키는 것임



〈그림 3〉 지역개발사업의 준비과정과 수요

-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요와 사업계획 사이의 피드백 과정들은 다음과 같음(그림 3)
 -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내용(위치와 규모, 유형, 시점 등)은 수요전망 결과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애초부터 유희자본(idle capital)이나 혼잡(congestion)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1단계 피드백)
 - 그리고 수립된 기본구상 또는 계획(안)에 대한 사전평가 작업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안)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2단계 피드백 과정이며, 이는 1단계 피드백 내용을 골자로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투자심사 과정을 통해 탈락된 사업의 경우, 심사결과에 제시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3차 피드백 과정이 있을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수요와 사업내용의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피드백 과정들의 충실한 이행여부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03

기초통계의 필요성과 현황

- 재정투자가 수반된 사업이든 일반 사업이든 관계없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첫 단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전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특히 재정투자사업들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사업의 유형이나 규모, 위치, 시점 등 구체적 사업내용 점검은 필수적인데 반해, 수요전망과 사업내용 결정 사이의 피드백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움
- 이 외에도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는 ① ‘사업량 및 사업비 결정’, ② ‘유지관리비 결정’, ③ ‘운영수입을 포함한 각종 편익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변수이므로 해당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요전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문제는 이러한 수요전망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통계의 이용가능성 문제가 대두하게 됨
- 이러한 기초통계는 일반적인 재정사업 추진 및 운영기간인 약 30년 기간의 수요변화를 전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수요전망 작업을 위한 기초통계는 간헐적이고 단발적인 수치가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함
 - 특히 본고에서 논의 중인 관광개발사업의 수요전망을 위한 기초통계인 관광통계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준비 및 정비되어 활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 무엇보다 관광개발사업이 주로 시군 이하의 소지역 단위에서 준비되고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되는 관광통계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지역 단위로 준비되어야 함

- 그러나 2018년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지역 관광통계로는 1)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상의 관광지별 집계자료(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수)와 2)국민여행실태조사에 포함된 관광목적지를 광역시도별로 구분한 여행객 출발지/목적지(O/D) 자료 등만 운영되고 있음
-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수 자료는 입장객수 기준으로 지역 내 방문객 수요를 전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앞의 표에 포함된 충남 내 집계지점(134개소)들이 도내 개별 시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 특히 이 자료는 시점별로 주로 유료 입장객 중심의 방문객 규모 정보만을 제공할 뿐 방문객들의 구체적인 관광행태와 소비지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함
- 또한 집계지역의 변동으로 일관성 있는 중장기 시계열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 자료가 충남 시군별 관광통계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표 2>의 집계지점 등 추가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상의 충청남도 내 주요 관광지점

(2017년 6월 말 기준)

구분	계	관광지점명
계	134	
천안시	2	테딘워터파크, 독립기념관
공주시	17	골드리버CC, 공산성, 한옥마을, 마곡사, 석장리박물관, 송산리 고분군, 임립미술관, 자연사박물관, 프린세스 골프클럽, 계룡산(가사, 동학사, 병사골, 상신, 신원사, 지석골, 천정), 국립공주박물관
보령시	6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문화의 전당, 석탄박물관, 오서산자연휴양림, 웨스토피아, 쥘트랙코리아(주)
아산시	14	도고컨트리클럽, 세계꽃식물원, 레일바이크, 스파비스, 외암마을, SG아름다운CC, 영인산자연휴양림, 온양관광호텔, 온양민속박물관,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피나클랜드, 환경과학공원, 신정호국민관광지, 현충사
서산시	4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버드랜드, 용현자연휴양림, 해미읍성
논산시	3	관촉사, 명재고택, 백제군사박물관
계룡시	1	나라사랑계룡대견학
당진시	6	난지섬관광지, 월드아트서커스공연장, 아드로랜드, 아미미술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금산군	4	산림문화타운, 에딘버러컨트리클럽, 칠백의총, 인삼관
부여군	14	능산리고분군, 롯데리조트(아쿠아가든), 롯데스카이힐부여CC, 만수산자연휴양림, 무량사, 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 청소년수련원, 유람선선착장, 서동요테마파크,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컨트리클럽, 고려인삼창인삼박물관
서천군	7	국립생태원, 마량리동백나무숲, 조류생태전시관, 한산모시관, 희리산자연휴양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스카이워크

구분	계	관광지점명
청양군	14	고운식물원, 알프스마을(도농교류센터), 군포시청소년수련회, 송의청소년수련원, 고추문화마을, 동강리오토캠핑장, 칠갑산(도립공원산장로, 자연휴양림, 천문대, 오토캠핑장), 다락골줄무덤, 장곡사, 천장호출렁다리, 목재문화체험장
홍성군	12	거북이마을, 그림이있는정원, 문당환경농업마을, 봉암장수마을, 용봉산(용봉초매표소, 구룡대매표소, 산림휴양관매표소), 조류탐사과학관, 홍성온천관광호텔부대시설(온천이용객), 식기박물관, 김좌진생가, 한용운생가
예산군	13	대흥솔로시티, 리솜스파캐슬(천천향), 봉수산자연휴양림, 세심천 온천호텔(온천), 수덕사,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예산사과와인, 한국고건축박물관, 황새공원, 윤봉길의사기념관, 추사기념관, 알토란사과마을
태안군	17	고남패총박물관, 네이처월드(꽃축제장), 안면자연휴양림, 안면도주라기박물관, 안흥유람선, 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태안연꽃축제), 팜카밀레허브농원, 노을길, 바라길, 바람길, 샛별길, 솔모랫길, 솔향기길, 신두리해안사구, 태안비치컨트리클럽, 현대더링스컨트리클럽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에서 인용

-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사하는 관광목적, 지역별 관광행태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들어있는 『국민여행실태조사』가 지역에서 관광개발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음(표 3)
- 그러나 이러한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들은 주로 국가나 광역 시도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결과를 중심으로 생산된 통계자료로 실제 관광개발과 관련된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시군 단위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음

〈표 3〉 국민여행실태조사 항목

구분	세부 내용
1. 일반사항	숙박·당일여행 여부/숙박·당일여행 및 북한여행 여부/여행 출발 및 도착월·일 / 여행시기 / 여행목적
2. 여행목적(지)	여행 선택 시 정보원/본인을 포함한 동반여행자 수 및 관계/여행지/여행지 선택이유 /주요 이동(교통)수단/숙박시설 및 숙박일수/여행지에서의 활동 / 전반적 만족도 / 재방문 의향/타인추천 의향
3. 여행지출액	여행지출비용 총액(자비, 타인지원, 총비용)/여행 사전예약 여부 및 종류 / 단체회비(경비) 지불여부 /단체회비(경비) 지불 금액/여행상품 구매 또는 이용여부 / 여행상품 구매 또는 이용 패키지 /여행상품 구매비용이 단체회비(경비)에 포함여부/여행 출발 전/후 항목별 지출액
4. 여행소감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 여행에서 좋았던 곳과 이유/여행에서 나빴던 곳과 이유 / 응답자 건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인용

- 결국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충남 도내에서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관광개발 재정투자사업의 채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관광통계의 정비와 추가 조사 등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04

타 지역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

- 앞서 설명한 지역 차원에서 관광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어려움들은 비단 충남도와 15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님
- 특히 타 시도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작업 중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지역 내 관광실태에 대한 조사작업임
 -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지역 내 시군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내방객들의 관광활동과 이들의 소비지출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정리하는 것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리된 지역 내 관광실태 조사결과는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실제의 투자심사 과정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함²⁾
- 이러한 이유로 지역관광 실태조사는 많은 광역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의 지자체들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관광 실태조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4)

2) 특정한 대안 없이, 광역시도 단위의 공식적 조사작업을 통해 정리되고 축적된 통계자료(방문객 수, 소비지출 금액 등)에 대해 공신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려움

〈표 4〉 지역별 관광실태조사 사례조사 요약

구분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강원	경남
조사주체	서울관광마케팅(주) (닐슨 컴퍼니코리아)	부산발전연구원	경기관광공사 (쑤리서치코리아)	대구경북연구원 (쑤리서치코리아)	강원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조사대상	외국인 (서울 여행 후 출국하는 외래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15세 이상) 외국인(15세 이상)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조사주기	1년 (2009년부터 시행)	2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1년	불특정 ('00, '04, '05, '10, '15, '17)	4년 (2006년, 2010년, 2014년)	2년(2008년, 2010년, 2012년, 2012년 이후 중단)
조사기간	- 1차 조사 2016.6.25.~ 7.3 - 2차 조사 2016.10.10. - 10.21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31일 (매월 주중, 주말조사)	분기별 1회 조사	2017년 4월 ~ 2018년 1월 분기별 1회 조사	2014년 3월~ 2015년 2월	계절별 1회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방법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 (중국인 심층면접조사)	정량조사	정량조사	정량조사	정량조사
조사지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내국인: 기본 8개 지점+여름 성수기지점 추가 외국인: 지역별 교통거점	- 34개지점(내국인 21, 외국인 3, 공통 10) - 경기를 4개 권역으로 구분 - 4개 권역에서 최대 4개 관광지 선정 - 시군별 1개(최대 2개) 선정	-	내국인: 강원도상위 10개 관광지 외국인: 강원도 주요 관광지	- 40개 지점 - 주요 관광지중 시군별 1곳 (총 20) - 시군별 2개 관광지로 한정 조사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3,000명(1차/2차 각 1,500명) 95% 신뢰수준±1.79%p	내국인 2,000명 외국인 200명	내국인 3,500명(95% 신뢰구간 ±2.5%p) 외국인 1,500명(95% 신뢰구간 ±2.5%p)	내국인 2,000명 외국인 1,000명	내국인 3,000명 외국인 1,000명	내국인 12,000명 외국인 800명 (2012년)
표본추출 방법	계통추출법	계절별 조사지점/ 표본수 차별화 봄17%, 여름38%, 가을23%, 겨울23%	계통추출법	- 내국인: 계통추출법 - 외국인: 유익할당	- 내국인: 비례할당 후 단순무작위추출 - 외국인: 편의추출	- 시군 관광지 별 비례 배분 후 조사지점 선정 - 단순무작위추출
자료 확보방법	출구면접조사 (Exit poll)		현장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t interview)	자기기입식	현장 면접조사	현장 면접조사 원칙,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2종(내/외국인) - 외국인은 5개국 언어	- 구조화된 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비고	-	정부통계승인(2007년) (16부터 빅데이터분석으로 대체)	-	-	정부통계승인 2006년	정부통계승인/2008년 중지 취소승인(2017년)

- 이러한 타 지역들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충남 지역 내 관광실태 조사를 위한 시사점은 <표 5>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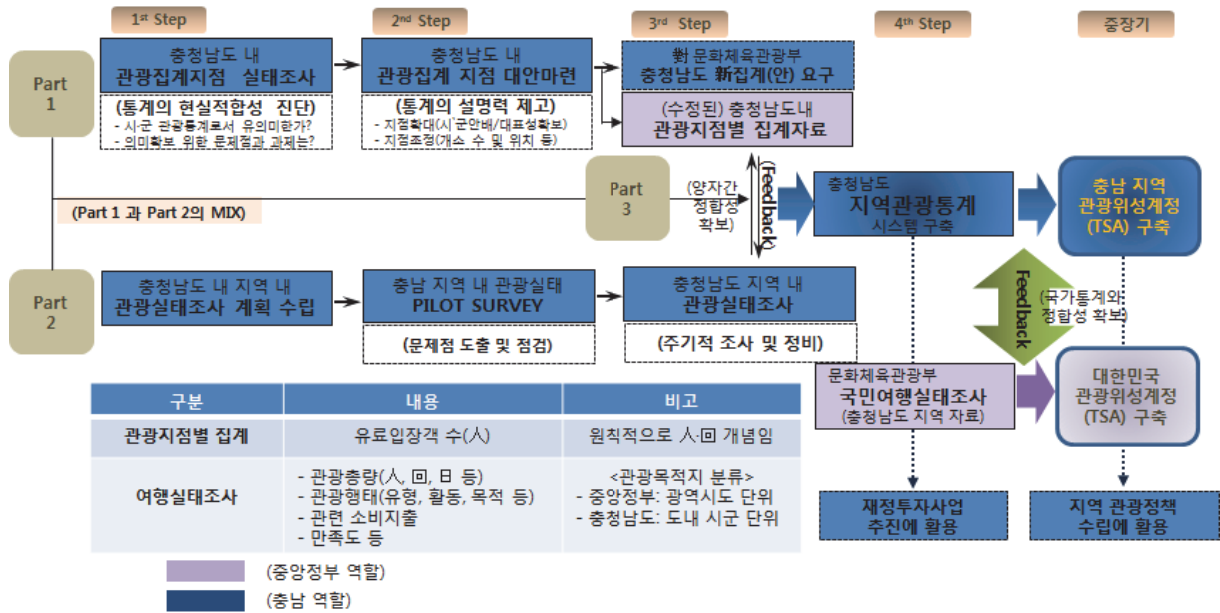
〈표 5〉 충남 관광실태조사 시사점(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제언)

구분	내 용
조사주체	- 조사주관: 충남연구원 (※필요시 유관경력 외부교수 참여) (실제 조사는 조사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
조사대상	- 내국인(15세 이상) - 외국인(15세 이상)
조사주기	- 원칙적으로 매년 조사하는 것이 좋음 -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주기로 조사 실시
조사기간	- 분기별 조사 또는 계절별 조사
조사방법	- 정량조사 - 필요시 외국인 관광객 조사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병행 실시
조사지점	- 내국인: 충남을 주요 권역으로 구분하고, 주요 관광지를 선정하여 조사. 시군별 2~3개 지점 조사 - 외국인: 충남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방문 외국인 조사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 내국인: 유효표본 규모 최소 2,000명~3,000명 - 외국인: 유효표본 1,000명
표본추출 방법	- 내국인: 확률추출법 (계통추출법) - 외국인: 유의할당, 편의추출
자료 확보 방법	- 현장 면접조사 원칙,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설문지	- 구조화된 설문지 2종(내/외국인) 사용 - 외국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
비고	- 장기적으로 정부승인통계를 목적으로 함

05

충남지역 관광통계 개선 방안

-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다음 (그림 4)에 정리된 바와 같음
 - 각 단계별 내용은 지역통계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 정책 또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①관광지점별 집계자료의 보완 및 정비 작업과 ②지역 내 관광실태조사 수행을 병행하는 것으로 함
 - 이 조정과정을 통해 두 자료의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각 특성을 살려야 할 것임
- 참고로 그림에 포함된 각 파트별로 세부단계는 충남도청 실무부서와 연구원 연구부서 사이에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 현실정합성을 확보한 충남의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 체계가 구축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도내 시군단위에서 관광총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행태가 규명되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추진은 물론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유용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이때 중앙정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와의 정합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각 파트별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은 요구되는 도 주무부서의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 충남의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안)

임 재 영 선임연구원 / 이 종 윤 연구원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041-840-1166

※ 이 글은 충남연구원 전략연구과제(2017) 『충남 지역관광통계 실태와 조사 및 정비 방안』을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각년호),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2015),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2015),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201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LIMAC)(2015),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